



기후가 경제 새로운 의정부

경기 의정부(갑) 국회의원

박지혜 | **보도자료**

더불어
민주당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35호 T. 02-784-3174 F. 02-6788-6985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9번길 10, 선진빌딩 302호 T. 031-875-0410 F. 031-875-0414

배포일 : 2024년 10월 24일 (목)	담당 : 이진선 선임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	----------------	-----------------

박지혜 의원, 산업부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요구

- 전환 및 산업 부문,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담당
- 박지혜 의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높여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촉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의 감축 대책 마련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실질 유상할당 비중은 0.48%에 불과해 산업계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2023년 614억 9,100만 원, 2024년 1,054억 580억이었으나,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되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첫 걸음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며, “다만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안전성 검증이 부실한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끝>